

약점 된 KIA 불펜, 강팀 상대로 오명 벗어라

지난 시즌 하위팀에 루징 시리즈...조상우 부활은 '위안거리'
2~3일 안방서 2위 삼성전...주말 '7연승' LG와 잠실서 격돌
'리그 적응 완료' 위즈덤...김규성·박재현 등 신예 '팀에 활력'



KIA 타이거즈 조상우가 지난 30일 경기에서 1.2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반전의 무대를 만들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KIA의 '뒷심'이 초반 순위 싸움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키움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를 상대한 KIA 타이거즈는 연달아 루징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2승 4패의 부진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아쉬운 한 주를 보낸 KIA는 '강팀'을 상대로 경쟁력 확인에 나선다. NC 창원파크에서 발생한 관람객 사망 사고로 1일 경기가 모두 취소되면서 KIA는 2~3일 홈에서 2위 삼성 라이온즈와 2연전을 갖는다. 주말에는 잠실로 가 7연승 중인 1위 LG 트윈스를 상대한다.

기대와는 다른 초반 흐름이다. 지난 시즌 하위권에 그쳤던 키움, 한화와의 대결을 두고 많은 이들은 '우승후보' KIA의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강점으로 꼽혔던 불펜이 요동쳤다.

25일 키움과의 첫 경기에서 5개의 홈런포를 날리면서 승리를 거뒀던 KIA는 기세를 잊지 못했다. 26일 선발 윤영철이 2이닝에서 등판을 마무리했고, 경기는 10-17 대패로 끝났다.

이후 경기에서는 약목의 7~8회가 이어졌다. 불펜진이 사사구를 남발하면서 자멸했고, 패배는 4경기까지 이어졌다.

'짧은 마운드'의 안정감이 필요하다.

김도영과 박찬호 두 핵심 선수가 빠진 타선에 아직 지난 시즌의 폭발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펜진이 리드를 지켜주지 못하면서 패배가 쌓였다.

불펜진이 사사구를 남발하는 등 타자와의 승부가 아닌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기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시작이 좋지 못했던 조상우가 지난 30일 경기에서 1.2이닝 퍼펙트 피칭으로 반전의 무대를 만든 점은 반갑다. 조상우를 중심으로 '짧은 마운드'가 공격적인 피칭으로 승리를 지켜야 한다.

윤영철로 스타트를 열게 되는 선발진은 효율적인 피칭으로 이닝을 늘려줘야 한다.

특히 윤영철의 두 번째 등판 결과가 중요하다. 윤영철은 시범경기까지 좋은 페이스를 이어왔지만 26일 키움과의 첫 등판에서 2이닝을 책임지는 데 그쳤다.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윤영철이 이닝에 집중해 불펜의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한다.

김도영과 박찬호의 공백이 아쉽지만 베테랑이 중심을 잡고 있는 타선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

나성범, 최형우가 초반부터 담장을 연달아 넘기고 있고 패트릭 위즈덤도 빠르게 리그에 적응하면서 3경기 연속 홈런까지 벌써 4호포를 장식했다.

'새 얼굴'도 타선의 활력이 되고 있다.

내야에서는 김규성에 시선이 쏠린다. 김규성은 지난해 1루수로도 역할을 한 전전후 내야수다. 김도영, 박찬호가 동시에 빠진 내야의 수비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규성은 타격 성장세를 보이며 다른 시즌을 예고하고 있다. 김규성은 지난주 19타수 8안타, 0.421의 타율을 찍었다.

외야에서는 '루키' 박재현이 화제의 인물이다. 빠른 발로 어필하는 박재현은 지난 30일 한화전에서 '괴물' 류현진을 상대로 프로 첫 안타를 기록했다. 우려했던 수비에서도 스피드를 바탕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괜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신구조화의 타선에 불펜의 각성까지 더해져, KIA가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BO '관람객 사망'에 오늘 전체 경기 취소

야구 관람객이 야구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KBO가 하루 쉬어간다.

KBO는 지난 31일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구를 사랑하는 팬 한 분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셨다. 희생자 및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아직까지 부상으로 고통받고 계신 부상자 두 분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KBO는 또 1일부터 3일까지를 예도 기간으로 정하고, 희생자 추모를 위해 1일 예정된 KBO리그 및 퓨처스리그 경기를 모두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무관중 경기로 치를 예정이었던 SSG와 NC의 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하기로 했다.

광주, 잠실, 수원, 대전 경기는 2일 재개되며, 경기 시작 전 희생자를 위한 묵념의 시간이 진행된다. 경기는 응원 없이 진행되며 전 선수단은 큰

조 리본을 들고 경기를 뒀다.

한편 이번 사고는 NC와 LG의 경기가 열린 지난 29일 3루측 매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알루미늄 소재의 '루바'가 낙하하면서 20대 재팬을 덮쳤고,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수술을 받았지만 이를 만에 숨졌다. A씨의 동생은 쇄골이 부러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KBO는 지난 30일로 예정됐던 NC-LG전을 연기했다. 또 경기장 안전 진단을 위해 NC와 SSG의 3연전은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연기를 결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효주, 1년5개월 침묵 깨다



31일 미국 애리조나주 샌들러의 윌윈드 골프클럽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김효주. /연합뉴스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 우승...통산 7승·총상금 147억원 돌파

김효주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년 5개월의 침묵을 깨고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또 LPGA 투어에서 역대 28번째로 통산 상금 1000만달러(약 147억원)를 돌파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김효주는 지난 31일 미국 애리조나주 샌들러의 윌윈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총상금 225만달러) 최종일 연장전에서 릴리아 부(미국)를 제압했다.

둘은 똑같이 최종 합계 22언더파 266타로 4라운드를 마치고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첫 번째 연장전에서 김효주는 1.5m 버디 퍼트를 잡아넣었고, 부는 3m 버디 퍼트를 놓쳤다.

김효주가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3년 10월 9일 볼란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제패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지난해 LPGA 투어 대회 출전이 18번에 그쳤고 톱10에 3번만 진입하는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시즌 최종전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 출전권을 간신히

확보했던 김효주는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우승자 대열에 합류하면서 강호의 면모를 되찾았다.

이 대회에 앞서 이번 시즌에 출전한 네 차례 대회에서 두 번 톱10에 입상하면서 경기력이 되살아났음을 알렸던 김효주는 "겨울 훈련을 열심히 했다. 효과가 이렇게 빨리 나타날 줄 몰랐다"고 기뻐했다.

겨울 훈련 동안 샷 정확도는 물론 비거리를 늘린 데다 이번 대회부터 사용한 제로 토크 방식 퍼터도 우승에 톡톡히 한몫했다.

우승 상금 33만7500달러(5억원)를 받은 김효주는 통산 상금 10만달러를 돌파하고 역수를 17만1237달러로 늘렸다.

L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1000만 달러를 넘어선 선수는 김효주가 28번째이며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 양희영, 고진영, 김세영, 박세리, 유소연, 최나연, 김인경에 이어 9번째다.

이미향과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공동 6위(18언더파 270타)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이민우, 세계 1위 세플러 꺾다



이민우가 3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오픈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PGA 투어 휴스턴오픈 제패...상금 25억1000만원

교포 선수 이민우(호주)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처음 우승했다.

이민우는 지난 3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메모리얼 파크 골프코스(파70·7475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텍사스 칠드런스 휴스턴오픈(총상금 95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0타의 성적을 낸 이민우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와 2019년 US오픈 챔피언 게리 우들랜드(이상 미국)를 1타 차로 제치고 생애 처음으로 PGA 투어 대회를 제패했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171만달러(약 25억1000만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0승을 거둔 이민지(호주)의 동생인 이민우는 그동안 DP 월드투어 3승, 아시안투어 1승을 수확했고, PGA 투어에서는 우승이 없었다.

1998년생 이민우는 메이저 대회에서는 2023년 US오픈 공동 5위가 최고 성적이다.

그는 2023년 11월 DP 월드투어 대회로 열린 호

주 PGA 챔피언십 이후 1년 4개월 만에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3라운드까지 2위에 4타 앞선 단독 1위였던 이민우는 이날 경기 막판 위기를 맞았다.

2위에 3타 차로 앞서 있던 16번 홀(파5)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불에 빠졌다.

그 사이 앞 조에서 경기하던 2위 셰플러가 16번 홀을 버디로 먼저 끝내 2타 차로 추격했고, 이민우는 이 홀에서 1타를 잃어 1타 차로 쫓기게 됐다.

그러나 셰플러는 이민우와 1타 차였던 마지막 18번 홀(파4)에서 189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이 그린에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1타 차로 따라잡지 못했다.

이민우 역시 18번 홀 티샷이 왼쪽으로 치우치고, 두 번째 샷도 그린을 살짝 넘기면서 먼저 경기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기다리던 셰플러와 우들랜드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다.

그러나 그린 밖 약 16m 거리에서 퍼터로 굴린 공이 홀 바로 옆으로 향하면서 이민우는 우승을 확실한 듯 포효하며 기뻐했다.

/연합뉴스



광주 스포츠클라이밍 '간판' 신은철 전국 선수권 우승...국가대표 선발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신은철(사진)이 제 45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 스피드 종목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30일 군산 클라이밍센터에서 끝난 '제 45회 전국 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스포츠클라이밍 '간판' 신은철(더실)과 최종빈(더실)이 스피드 종목에서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다.

대한 산악연맹이 주최한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불타, 리드, 스피드 3종목이 진행됐으며 17세 이상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2025년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진행됐다.

신은철과 최종빈은 국가대표 발탁 조건인 3위 안에 들면서 오는 4월 중국 우장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과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5 IFSC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대회'의 출전 자격을 얻었다.

오는 5월 군 입대를 앞둔 신은철은 IFSC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에는 개인사정으로 출전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는 신은철은 9월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출전할 수 있다.

최종빈은 앞서 제주픽스볼터 소속으로 활동하다 올해 광주로 소속을 옮기면서 좋은 성과를 냈다.

여자 불타 종목 3위에 오른 정예진(더실)은 주 종목인 리드에서 불타로 바꾸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정예진은 국가대표 출전 조건(2위)을 맞추지 못했지만, 리드와 불타 2개 종목에서 2관왕을 달성한 1위 서재현(서울시청)이 리드 종목 출전을 선택하면서 불타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단민 기자 kdi@